



홈페이지 바로가기

IURC Newsletter

인 천 광 역 시 도 시 재 생 지 원 센 터

Vol.2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Contents



도시재생 현장 통신

“

서쪽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



도시재생 전문가 칼럼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문가 역할에 대한 단상
- 인하대학교 김천권 교수



시민기자단 우수콘텐츠

정민영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청리단길의 감성 둘러보기

조연희

인천 화약공장
푸른 공원이 되었다네

김양현

아이와 어른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



도시재생 이모저모

인하대학교
도시재생 인재양성
거점대학 선정



IURC NEWS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 인천광역시, 2020 소규모 재생사업 3개소 선정
- 인천형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사업 선정

서쪽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효성마을은 과거 역새풀이 무성한 벌판이란 뜻의 '새풀' 또는 말을 먹이던 '새벌'로 불리다 이것이 변하여 새별이 된 곳이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때 새별지역만 변화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반짝이는 새별이라 하여 효성(曉星, 금성)으로 표기하면서 유래되었다.

효성마을의 도시재생은 2018년 3월 인천시가 주관하는 애인(愛仁)동네 희망지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8년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고, 2019년 계양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애인(愛仁)사업을 시작할 당시 28명이었던 주민협의체 회원은 2020년 5월 현재 99명에 이르고 있다. 주민협의체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관심분야도 다양화되어 공동체분과, 주거환경분과, 경제분과, 재건축분과 등 분과를 나누어 집중하고 있다. 각 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주민협의체 대표, 부대표 등과 함께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전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공동된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는 매달 세 번째 화요일 저녁에 운영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는 잠정 중단되었다). 현재 주민협의체는 효성마을 뉴딜사업의 2020년 4개의 주민공모사업 중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발굴한 3개의 주제를 운영위원회, 공동체분과, 주거환경분과에서 각각 말아별난 골목 대장, 별난 농부들 등의 단체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양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간조직으로서 계양구와 효성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교육과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과 유관기관, 전문가, 관련 사업 등을 연결하여 도시재생의 정착과 실현을 이루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네이버카페를 통해 '효성마을 사람들'(새별마을 자서전), '오늘, 효성마을은' 등 효성마을의 역사와 일상을 담아내고 있다. 즉, 소

통 공간 제공, 협력체계 운영, 주민 참여 지원,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 역량강화, 도시재생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 홍보, 효성마을 기록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주민역량강화의 일환인 도시재생대학을 2020년에는 이론강좌, 실용문화강좌, 집수리강좌, 특별강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론강좌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사업발굴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중심으로, 실용문화강좌는 주민 참여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집수리강좌는 셀프 집수리를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특별강좌는 재건축, 사회적 기업 등 주민들이 당장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구청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이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의 관심과 참여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고 서로 다독여 가면서 나아간다면, 효성마을의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조만간 효성마을 주민협의체가 목표로 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을 통해 자립식 마을경영을 이루어낼 것이라 기대한다.



 **계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서관호**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문가 역할에 대한 단상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뉴스레터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제 한국사회의 급성장과 함께 도시도 몸집을 키우는 양적 성장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도시재생은 이제 도시발전을 위한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필수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한국도시는 고도성장을 추구하며 낙후지역의 전면철거를 통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도시는 아파트가 숲을 이루며 회색빛 공간으로 탈바꿈했지요. 20세기에 들어서서 산업과 사람이 도시로 급속히 집중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고밀도 도시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단지와 복합상가들이 도심에 들어서는 근대도시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사회에서 인구성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인구와 산업의 이전이 진행되어 낙후와 침체상태에 빠진 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아마 근대 도시개발 방식을 답습했던 전면철거에 따른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했겠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이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다양성과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사회도 생태계 원리를 벗어나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토양과 환경이 맞아야 하듯이, 지역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사람 그리고 그 위에서 벌어지는 활동 사이에 궁합이 잘 맞아야 합니다. 인천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종도에서 추진되었던 '밀라노 디자인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인천이라는 토양에 전혀 기반이 없는 디자인 산업을 무리하게 뿌리를 내리려 했으니 사업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추진된 글로벌 도시개발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국제공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송도 글로벌 도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에서 도시개발과 재생을 위해서는 공간, 사람,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바로 공간과 사람 그리고 그 위에서 벌어지는 활동 사이에 조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이 갖는 역사성, 인문지리적 특성, 정체성, 장소성 등을 탐구해야 하며,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구분포, 연령, 소득, 세입자 분포 등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연구해야 하

고,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에서 벌어지는 산업 활동과 구조, 거리의 경관, 산업 경쟁력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와 전문가는 도시재생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 조절을 위한 코치와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시재생은 다양한 학문과 접근이 융·복합된 종합학문적 특성을 갖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민, 전문가, 지역산업, 시민단체 등 지역 주체들이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과 다중 지혜를 끌어내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다양한 사람과 직종, 인종과 언어, 문화와 종교, 계층과 집단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도시를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양한 목소리를 갖는 주민들 사이에 의견청취와 갈등관리를 통하여 공동체 협력을 위한 조화를 끌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오케스트라의 구성원들이 지휘자를 통해 멋진 앙상블을 만들어내듯이,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서 조정과 통합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된 즐거운 도시를 조성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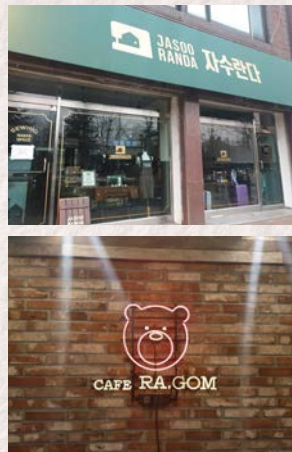
김 천 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인천 부평 청리단길의 감성 둘러보기

원문 보러 가기 >>



최근 들어 인천에도 특화거리로 알려진 -리단길이라는 이름의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잘 알려져있는 곳은 부평역 상권인 부평 문화의 거리나 평리단길, 부평 테마의 거리, 부평 해물탕거리가 전부였는데 최근 부평구청역과 굴포천역 사이에 떠오르고 있는 청리단길이 등장했다. 부평역 상권은 지하상가로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서 인기가 많이 줄었다. 애초에 부평 문화의 거리의 시초는 패션문화의 거리였는데, 최근에 평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감성 카페나 분위기



있는 펍, 식당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평리단길은 주로 젊은 나이의 상인들이 창업한 카페나 디저트 전문점, 레스토랑이 대부분인데 최근 SNS의 인기로 인적이 많은 편이다. 이와 유사하게 부평구 갈산동에도 골포먹거리타운이 조성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저렴하여 카페나 공방이 들어와 청리단길이라고 불리고 있다. 청리단길이 위치한 부평구 갈산동 377일원 36,880m에 어린이 공원을 가로일체형 중앙광장으로 만들고, 광장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이용객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쳤다. 굴포천역에서 청리단길로 향하는 길에는 대부분 주택가로, 차량 정비업체나 창고로 보이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공원이 일자형으로 있었지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적은 편이었다. 청리단길 위치 상 부평구청역과 굴포천역 사이에 위치해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10분 정도 도보로 걸어가야 한다.

열심히 골목길을 걸어가다보면 길가로 향하는 골목에 감성적인 가게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다. 청리단길은 평리단길과 유사하게, 카페거리가 이어져 있었고 자수 전문숍이나 옷이나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가게들이 많았다. 그냥 골목길로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이 곳이 청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향하도록 한 데에는 모두 이곳 창업자들의 특색 있는 인테리어와 그들만의 사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제1기 시민기자단

정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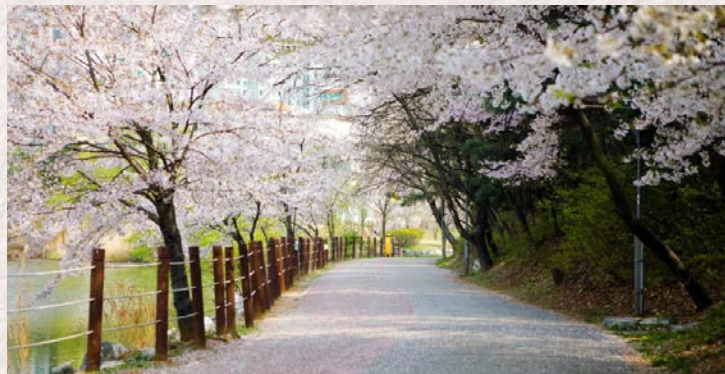
인천 화약공장 푸른 공원이 되었다네

원문 보러 가기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제1기 시민기자단
조연희



무심코 거닐던 공원이 알고 보니 화약공장 자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바로 인천 놀솔길공원을 말합니다. 매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팡팡 터지는 세계불꽃축제를 주최하는 한화그룹이 우리나라 화약산업을 발전시켰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그 한화 인천공장이 있던 자리가 지금의 인천 놀솔길공원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풍경에 2006년 공장이 이전하기 전까지 이곳에 화약공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쉬이 믿기 힘들습니다. 놀솔길공원 산책로를 따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화 기념관을 둘러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곳에 공장이 있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한화 기념관 본관과 다양한 건물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한화 인천공장을 추억해볼 수 있습니다. 놀솔길공원은 봄에는 벚꽃 명소가 가을에는 단풍 명소로 손꼽힙니다.

놀솔길공원에는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어 계단 없이 쭉 뻗은 길은 휠체어를 타고도 모든 구간을 둘러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모든 구간에 설치된 안전바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어르신들도 모두 함께 즐기는 이상적인 공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편백 숲놀이터는 놀솔길공원



의 유쾌함을 담당합니다. 메케한 화약 냄새를 풍기던 자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숲으로 채워졌습니다.

강원도 산자락에서 볼 법한 양떼목장도 놀솔길공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14년 친환경 공원잔디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면양 7마리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늘어 북적거립니다. 명실상부 놀솔길공원의 마스코트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면양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옛날 화약 공장이 있던 시절, 이곳이 공원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화약 공장이 떠난 자리는 주민들의 아늑한 쉼터가 됐습니다. 놀솔길공원은 단순히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



지난 4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537-51번지 일원, 수봉마을로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등과 함께 미추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인 수봉마을은 연화사부터 도화초등학교 앞 대로까지의 도화동 537-51 일원입니다. 미추홀구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명은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로 총 사업면적 21,893㎡, 총사업비 185.17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답사는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보며 이곳에 무엇이 조성되고, 그 안에서 어떤 작업과 사업이 진행될지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답사의 출발지는 연화사(사찰)였는데요. 연화사 앞,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앞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일자리 상담센터와 다함께 돌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노인정으로 이용되었던 낡은 컨테이너는, 수봉오아시스 담소터가 되어 어르신들께 쾌적한 모임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컨테이너 옆 경사로 중간쯤에는 공터가 있는데, 어울림 공동작업장을 2층으로 조성해 어르신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지에는 바래길 조성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은 '공부하길'로 도화초등학교 주변, 주황색은 '편안하길'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초록색은 '안전하길'로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래길은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며, 공부하기 좋은 길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답사를 진행하다 보니,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더불어 빈집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빈집이 늘어가면 쓰레기가 쌓이고, 동네가 점점 행하게 변해가는데요. 노후한 집을 매입하고, 빈집을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동네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순복 센터장의 말씀에 저도 동참합니다. 가급적 많은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익 창출 및 공동의 편익을 위한 더욱 더 많은 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순복 센터장은 초기 비용과 노력이 많이 투자되는 마중물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수봉마을이 주민에 의해 자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과 카페 등에서 수익 창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곳은 1980년대 형성된 주택지로 이면부 좁은 도로와 노후건축물 등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으로 좁은 골목과 경사로, 노후한 집이 있는 곳이었지만, 더럽거나 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은 커녕 골목과 담벼락은 깨끗하고 주민들의 표정을 밝았습니다. 2022년까지 수봉마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 새 모습으로 거듭날 텐데요. 어린이집 원아부터 초·중·고생,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곳,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으로 더 풍요로운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봉마을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 앞으로 더 멋진 곳으로 변화할 수봉마을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제1기 시민기자단

김양현





인하대학교 도시재생 인재양성 거점대학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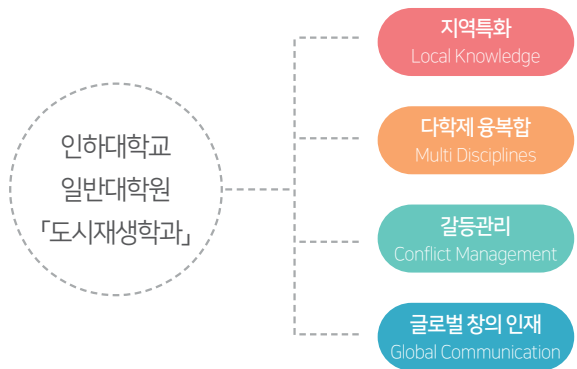


인하대학교는 2020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대학 공모에 최종선정되었다. 본 공모는 지난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2019년 10월 8일)에 보고된 도시재생 인력양성방안의 주요한 추진과제로서 도시, 건축, 경제, 문화, 복지, 거버넌스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공모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약 30개 대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1차 선정된 10개 대학(인하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경성대, 충북대, 광주대, 전남대 등)을 대상으로 2차 발표평가와 3차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인하대학교가 최종선정되었다. 인하대학교는 향후 5년 동안 장학금, 교재개발, 인건비 등 국비 지원(11.5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인하대학교는 도시재생 석박사 교육프로그램과 거점교육기관 연합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청운대학교, 인천카톨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등)과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부천시, 안산시, 김포시, 평택시 등), 공기기업(인천항만공사, LH공사 인천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도시공사(인천, 평택, 안산, 화성, 시흥, 부천 등),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민간기업, 시민단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인하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공모사업 시작부터 최종선정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인하대학교 조명우 총장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 교육기관으로서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재생학과가 성공적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대학부담금, 교수인력, 공간, 장학금 등)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지역기반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청운대학교, 인천연구원, 인천항만공사도 공모사업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였다. 인천광역시 박인서 균형발전 부시장은 300만 대도시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 항만, 산단, 도서지역 재생이 꼭 필요하고 인하대학교와 협력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은 도시재생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하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2020년 5월, 그리고 첫 수업은 2020년 8월 31일 시작된다. 입학정원은 30명 내외이고, MOU기관 장학금, 학부 연구생 장학금,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장학금, 건축사,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전문가를 위한 특별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제공된다.

- 최고 수준의 현장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년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 다학제 융복합 혁신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산학연과 협력 도시재생 교육교재 개발사업 추진
- 최고 수준의 성과공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시재생 기술 이전 시스템 구축
-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시재생 JOB 박람회 개최

+

수도권 서남부
지역거점 도시재생
교육기관 연합체 육성



IURC NEWS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지난 5월 20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센터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발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전 주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95번길 25, 3층



인천광역시, 2020 소규모 재생사업 3개소 선정

인천광역시는 주민이 제안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소규모 재생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2018년 3개소, 2019년 3개소에 이어 2020년에도 3개소의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커뮤니티 등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	사업명	주요 사업	사업비
미추홀구	마을이야기 정겨운 독정골 마을	마을콘텐츠 발굴 및 마을특화모델 수립, 커뮤니티 활동 공간 조성 등	200,000천원
연수구	어서와 함박마을은 처음이지	모두가 함박 옷는 공간 만들기, 함박 옷으며 함께 하는 공동체 등	381,740천원
강화군	동문안 사람들 이야기	그림책 작가되기 프로젝트, 마을책방 만들기 등	160,000천원

※ 소규모 재생사업: 10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

인천형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사업 선정

인천시가 '인천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인천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내 실시계획 수립과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3~5곳씩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주거형·골목상권형·테마특화형의 3개 시범사업지를 선정·발표했다.

유형	선정사업지	현황	특징
생활주거형	계양구 계산로 72번길 일원	-연장: 약0.9km -면적: 약25,000㎡	전형적인 인천 골목길
골목상권형	부평구 부개동 일신시장 인근	-연장: 약0.48km -면적: 약20,000㎡	주민조직 활성화 지역
테마특화형	중구 신흥동 부윤관사 일원	-연장: 약1.0km -면적: 약20,000㎡	건축자산 다수 존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www.iurc.or.kr

Tel : 032-260-5352~4, 5362~5, 5372~5 | Fax : 032-213-6110

(221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95번길 25 3층 (도화동)